

“광주에서는 왜 ‘반 고흐 전시’ 관람 못 하나요?”

지역 ‘블록버스터급 전시’ 태부족 대전은 내달부터 ‘반 고흐’ 특별전 국립미술관 역할·적극성 부족 지역 미술관 규모·지역 특성 등 원인 ‘공공·민간 협력 지원 확대해야’

‘문화예술 중심도시’라 자부하는 광주에서 정작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열리던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광주시와 비슷한 인구수를 지닌 타 도시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어 관내 국립미술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4일 대전시립미술관에 따르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76점을 선보이는 ‘별들의 화가 반 고흐’ 특별전이 다음달 25일부터 6월22일까지 열린다. 이 전시는 대전시립미술관, 대전MBC, 대전일보, ㈜서울뮤지엄센터가 공동 추진해 이뤄진 공공·민간 협력 사례로, 예산 20여억원을 4개 기관이 분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시가 대전시에서 성사될 수 있었

던 건 미술 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네트워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는 “1년에 국내에 들어오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는 30개 가량이며 이 중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개최된다. 이 중 일부 전시를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신뢰가 중요하다”며 “대전시립미술관의 경우 그간 ‘피카소와 천재화가들’, 앤디 워홀을 필두로 한 ‘폴리처상 사진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쌓아온 유대 관계가 이번 전시 유치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시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현재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동명의 전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를 순회 형식으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 이와 비등한 수준의 네임밸류를 가진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던 시기는 무려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08년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을 열고 루벤스 작품 19점을 포함해 75점의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측은 당시 흥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당 전시가 예상보다 저조한 관람객수를 기록하며 이후 대형전시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미술계는 침체된 전시장황성화를 위해서라도 대중성을 갖춘 대형전

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미술계 인사 A씨는 “광주시립미술관의 전시 기획은 예술성에 치중돼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려는 적극성은 부족하다는 인상이다. 대형 전시 유치가 침체한 광주 미술계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광주시립미술관을 포함한 관내 미술관들은 평일·주말을 막론하고 관람객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관람이 어려운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특히 두드러진다.

결국 관내 미술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대형 전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민간미술관이 개최하기 어려운 전시를 국립미술관이 나서서 기획하는 적극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처럼 대규모 전시가 광주에서 쉽사리 열리지 못하는 데에는 단순히 행정의 기획력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은 광주시의 대형전시 개최 난항 이유로 △예산 부족 △미술관 규모 △교통 불편 △지역 특성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 미술인들이 블록버스터 전

시 개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술계 인사 B씨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대중적으로 선호되는 전시를 지역 작가들이 반기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대규모 전시가 열리면 그 기간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일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본관 전시예산이 7억5000만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런 블록버스터 전시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며 예산을 증액하거나 기획사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수십억이 소요되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는 미술관 자체 기획으로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기획사에서 전시를 조직해 국립미술관과 협력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대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 개최 후 지역에서 1회 순회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철저하게 흥행을 염두에 두고 장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미술 전시에 대한 열망과 기획사의 관심이 맞아떨어져야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형 전시 유치에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지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는 “광주의 미술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수익 측면에서 대규모 전시 유치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 기업, 미디어 등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여 후원을 유도할 수 있는 ‘지자체-민간-미디어 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의 경우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제도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한국메세나협회에서 발간한 ‘2023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지역별 문화예술 후원 비율은 △서울시 37.6% △경기도 18.7% △부산시 10.4% △대구시 10.3% △충청도 4.1% △경상도 3.4% △울산시 3.2% △인천시 2.5% △강원도 1.6% △전라도 1.5% △제주도 1.1% △대전시 1.0% △해외 0.8% △광주시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비한 광주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 후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칭펀드 프로그램이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고안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전통예술 공연 선보일 예술인·단체 찾습니다” 어린이·가족에 독창적 문화 경험 제공할 예술인 모집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작품 공모 판소리·산조·국악창작·연희·무용 등 내달 5일까지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전통예술 분야 활성화 및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올 해 선보일 ‘토요 상설공연’ 참가 작품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24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공모 작품 장르는 전통연희, 무용, 국악창작 무대 등 전통예술이다.

선정 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며 △판소리, 산조 분야별 개인 5인·총 10인 △국악창작 무대 6개 단체 △전통연희 또는 무용 작품 6개 단체 총 12팀이다. 선정된 개인에게는 출연료 100만원, 단체에게는 출연료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전통예술의 전승과 계승을 위한 전문 지식과 공연 역량을 갖춘 전문 단체(개인)면 가능하다.

다만 ‘2024 전통문화관 토요 상설공연’에 참여한 단체(개인)이거나 2025년도 광주문화재단 창작 지원사업(통합공모)에 2건 이상 선정된 단체(개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종교기관 소속 단체, 학교 학위 취득 연주 목적으로 출연진의 30% 이상이 아마추어 수강생으로 구성된 단체

(개인), 광주시 소재가 아닌 단체(개인), 국·공립예술단체 소속 출연진이 포함된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다.

올해 토요 상설공연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 및 너털마당에서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판소리·산조(5회) △국악 창작(6회) △연희·무용(6회) 총 17회와 광주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단체)를 초청한 기획공연 7회로 진행된다.

특히 매월 첫째 주 판소리·산조, 둘째 주 국악 창작, 셋째 주 연희·무용, 마지막 주 광주시 무형유산 초청공연을 선배 무대인 일대를 전통 풍류와 가락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 시각 내 접수된 건수만 인정된다. 제출 서류는 공모신청서, 공연계획서, 공연 실적자료 등이며 서식은 광주문화재단(http://www.gjcf.or.kr) 및 전통문화관 홈페이지(http://www.gtcc.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gjcf338@naver.com)로만 가능하다.

박찬 기자

ACC재단, 내달 9일까지 접수 시각예술 분야 작가 및 팀 대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창의적 문화예술 체험 제공을 위한 ‘2025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가족창작라운지 전시 및 워크숍’에 참여할 예술인을 다음달 9일까지 공모한다.

24일 ACC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어린이와 가족이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독창적인 전시 체험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춘 개인 작가 또는 팀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주제는 ‘축하(Celebration)’로 ACC의 올해 핵심 주제인 ‘생활양식’과 연계된다. △나의 작은 기념일 △우리의 즐거운 축하 △세상의 모든 소망 등 세 가지 세부 주제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예술로 새로운 시각을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참여할 예술인 및 단체는 어린이와 가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안하면 된다.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설치 등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II 내달 14일 ACC 예술극장 극장2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체임버 시리즈 II ‘Ignition’ 무대가 다음달 14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펼쳐진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시향의 비르투오소를 꿈꾸는 신예 연주단원들(바이올린 강다영, 비올라 유효립, 첼로 장서울, 플루트 김예담)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실내악 공연으로 기획됐다. 각 악기가 빛어내는 섬세한 하모니와 창조적 해석으로 관



지난해 5월5일 개최된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하우펀 10’ 현장. ACC재단 제공

련할 방침이다.

이외에 참여할 예술인 및 단체는 어린이와 가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안하면 된다.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설치 등

시각예술 분야의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작가 또는 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3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서류는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젊은 단원들의 열정과 클래식 음악의 전통을 아우른 무대… ‘Ignition’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II 내달 14일 ACC 예술극장 극장2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체임버 시리즈 II ‘Ignition’ 무대가 다음달 14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펼쳐진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시향의 비르투오소를 꿈꾸는 신예 연주단원들(바이올린 강다영, 비올라 유효립, 첼로 장서울, 플루트 김예담)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실내악 공연으로 기획됐다. 각 악기가 빛어내는 섬세한 하모니와 창조적 해석으로 관

객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의 전반부는 현악 삼중주로 구성된 다. 슈베르트의 ‘현악 삼중주 B♭장조 D.471’이 연주되며 밝고 경쾌한 멜로디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도흐나니의 ‘현악 삼중주를 위한 세레나데 C장조 op.10’이 연주되며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선율을 들려준다.

공연 후반부는 플루트 사중주로 장식된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1번(D장조, K.285)과 4번(A장조 K.298)을 연이어 선보이며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

성과 그가 추구한 음악적 자유로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는 신예 연주자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음악적 열정을 마음껏 펼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들의 에너지와 창의성이 클래식 음악의 전통과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II ‘Ignition’은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전석 1만원.

박찬 기자